

2학년 학생들이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고쳐 쓴 소설

[저작권자: 2020년 송정중 2학년 학생들, 무단전재 및 배포 금지]

아래의 소설들의 저작권은 송정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온오프라인의 지면에 실을 수 없습니다.

<작가 관찰자 시점>

- 소설 속의 '서술자': 소설 속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이야기(서술)해주는 사람.
- 시점: 서술자의 위치
- 원래의 소설인 '동백꽃'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습니다.
- <작가 관찰자 시점>(카메라맨 시점)
 - 소설 속의 작가가 이야기를 서술함. (실제 작가 아님. 소설 속의 작가임.)
 - '작가 관찰자'는 '전지적 작가'와는 많이 다른 서술자임.
 - 소설 속의 작가가 관찰한 내용만을 독자들에게 이야기(서술)해 줌.
 - 소설 속 작가가 카메라를 들고 등장인물들을 촬영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쉬움.
 - 서술자는 등장인물들을 관찰하는 작가(관찰자)이므로 등장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처럼 서술함.
 - 어떠한 등장인물들의 생각이나 속마음 등도 서술할 수 없음.

(※참고) 2학년 학생들이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써서 제출한 이야기들 중에 인물의 생각이나 인물의 속마음을 서술한 부분이 나오는 경우는 선생님이 그 부분을 삭제하거나 고쳤습니다.

○ 2학년 학생들이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쓴 소설 (1)

점순이가 덕수의 등 뒤로 말을 건넨다.
“애 너 혼자만 일하니?”
그러자 덕수는 띠꺼운 말투로 “그럼 혼자 일하지. 떼거지로 일하나?”라며 툭 쏘아 붙인다. 하지만 점순이는 아랑곳 하지 않고 덕수의 뒤에 감자를 불쑥 내밀며 말하였다.
“너는 이런 거 먹어본 적 없지? 먹어봐라.”
그런데 덕수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거절하고 갔다.

○ 2학년 학생들이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쓴 소설 (2)

아랫집 덕수가 울타리를 고치고 있는데 점순이가 조용히 덕수에게로 가서 말을 걸었다.
“애! 너 혼자만 일하니?”
그런데 덕수는 무시하고 일만 한다.
그러자 점순이는 따끈따끈한 구운 감자 3개를 보여주며 “너는 이런 거 못 먹어 봤지?”라며 비꼬듯 말한다.

그러자 화가 난 듯한 덕수가 “됐어.”라며 안 먹는다고 손짓을 한다. 그러자 점순이는 금방 울 듯한 얼굴로 어깨를 들썩인다. 덕수는 눈치가 없는지 한참을 뒤돌아보지 않는다. 3분이 지나고 덕수가 “아직도 안갔니?”라며 뒤를 돌아보고는 당황했는지 눈을 동그랗게 뜬다. 그러자 점순이는 창피한 듯이 빨간 볼을 가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점순이는 집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닭장으로 가서 제일 날쌔고 힘세고 튼튼하고 닭장구역 1째인 닭을 잡아서 들어 올리고는 묘한 웃음을 짓는다.

○ 2학년 학생들이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쓴 소설 (3)

점순이가 감자를 굵고 있다. 다 굵고 순돌이네 집으로 향한다. 순돌이가 보이는데도 다가가지 않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그러다 순돌이에게 다가 간다. “느그 집엔 이런 거 없지?”라고 점순이가 말했다. 순돌이는 본체도 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점순이가 순돌이에게 막 욕을 퍼붓는다.

○ 2학년 학생들이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쓴 소설 (4)

점순이는 저 멀리서 밭일하는 남주가 눈에 띄었다.
 “오늘은 말이라도 한번 섞어봐야지.”
 점순이는 감자를 들었다.
 그러며 주위를 돌았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감자를 굵기 시작했다.
 “아, 맛있겠다.” 점순이는 중얼거렸다.
 감자가 다 구워졌는지 점순이는 감자를 들고 짹짹 밭으로 달려갔다.
 점순이는 바로 앞에서 일하는 남주를 보고는 뛰어오르라 땀범벅이 된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그리고 점순이는 이제 남주에게로 다가가는데...

○ 2학년 학생들이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쓴 소설 (5)

점순이는 요새 아랫집 점돌이를 계속 힐끔힐끔 쳐다본다, 그러곤 어느 날 점순이는 몰래 집에서 감자를 몇 개 빼와 열심히 굵는다. 그리고 다 구워진 감자를 아랫집 점돌이에게 가져간다. “느 집엔 이거 없지?” 점순이가 말한다. 그 말을 들은 점돌이는 살짝 기분나쁜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점순이는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라며 감자를 건넨다. 하지만 점돌이는 여전히 기분 나쁜 표정을 하며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라면서 점순이의 감자를 밀어낸다. 그 말을 들은 점순이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며 눈물이 글썽거린다. 점돌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쳐다보자, 점순이는 그대로 자기네 집으로 뛰어서 도망간다. “저 녀석이 왜 저러는 거야?” 점돌이는 말했다. 그 뒤로 점순이는 비쩍 마른 점돌이네 닭과 더 튼실한 자기네 닭과 매일 싸움을 시킨다. 점돌이는 처음에는 자기네 닭이 당하는 걸 지켜보기만 했다.

○ 2학년 학생들이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쓴 소설 (6)

점순이라는 아이와 남주라는 아이는 이웃이다. 점순이는 여러 해 동안 남주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점순이는 남주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어느 날 점순이는 몰래 아궁이에서 감자 세 개를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구워서 남주에게 주었다. 하지만 남주는 그냥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 감자를 안 먹는다고 거절하였다. 그러자 점순이는 찡그린 얼굴을 하고 집에 가버렸다. 하지만 그래도 남주는 점순이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점순이는 며칠 후 남주네 닭을 매일 훔쳐가 피지컬부터 다른 자신의 닭과 싸움을 붙이기 시작하였다. 또 남주는 이기려고 닭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점순이는 남주가 나무를 하러간 사이에 닭을 훔쳐다가 싸움을 시키고 자기는 풀피리를 붙고 있었다. 남주는 자기네 집 닭이 점순이네 집 닭에게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된 것 보고 점순이네 닭을 나무 막대기로 때려 죽였다. 그러자 점순이는 남주에게 닭을 죽였다면서 뭐라고 하였다.

○ 2학년 학생들이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쓴 소설 (7)

윗집 점순이가 남주에게 "느 집엔 이거 없지? 라는 말을 하면서 감자를 건넸다. 남주는 감자를 받지 않았고 점순이는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 남주네 닭을 점순이가 자신의 닭과 싸움을 붙였다. 남주네 닭이 일방적으로 맞고 있었고 그걸 본 남주는 싸움을 말렸다. 남주가 점순이에게 "왜 우리 닭하고 너네 닭하고 싸움을 거냐?"라고 말했다. 그리고 저번에는 남주에게 점순이가 '배넛병신', '고자' 등의 욕설을 하였다.

며칠 째 점순이에게 욕을 듣고 닭까지 괴롭힘을 당하던 남주가 산에서 일을 하다가 닭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 점순이가 또 닭들을 싸움을 붙여 놓았다. 남주는 화가 난 표정으로 바로 점순이네 닭한테 달려들어 점순이네 닭을 지게 막대기로 때려 죽이고 말았다. 그러자 점순이가 "왜 내 닭을 때려죽여!!"라며 화를 내었다. 그런데 남주는 아무 말도 못했다.

○ 2학년 학생들이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쓴 소설 (8)

점순이는 부모님이 나가신 사이 감자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는 밖으로 나간다. 밖으로 나가 감자를 굽는다. 빨갛게 물든 얼굴이 마치 사과 같다. 감자를 다 굽고 남자주인공에게 간다. 그 때 남주는 울타리를 고치고 있었다. 점순이는 남주에게 다가가 감자를 건네며 말한다. "애, 니네 집에는 이런거 없지?" 남주는 화가 난 표정으로 바뀌며 점순이가 건넨 감자를 받지 않는다. 점순이는 무안한 표정 같기도 하고 화가 난 표정 같기도 한 표정을 짓는다.

다음날부터 점순이는 철없는 장난을 시작한다. 자신의 닭과 남주의 닭을 데리고 와서 싸움을 시킨다. 저기 산에서 오던 남주는 그 상황을 목격하고 빨리 뛰어온다. 그리고 남주는 닭싸움을 말리며 점순이를 혼낸다.

다음날에도 점순이는 남주가 올 때쯤 되자 다시 닭싸움을 시킨다. 남주는 어제와 같이 점순이를 혼을 낸다. 점순이는 그 말에 화가나 남주에게 욕을 한다.

그러고 다음날 이번에는 남주가 닭싸움을 시켰다. 고추장을 먹인 남주의 닭이 처음에는 강한 기세를 보였지만 점점 갈수록 잘 먹고 잘 큰 점순이네의 닭이 더 세서 남주의 닭이 끝내는 졌다.

다음날은 점순이가 아침부터 언덕을 올라갔다. 그 때 남주는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다 뒤져보다가 언덕으로 갔다. 남주가 언덕에 도착해서 자신의 닭이 거의 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 달려가 손에 쥐고 있던 막대기로 점순이의

닭을 죽였다. 남주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점순이가 그걸 가만히 바라보더니 남주에게 가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고 남주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거린다. 그 때 점순이의 엄마가 와서 점순이와 남주는 동백꽃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점순이가 남주에게 자신의 말을 잘 들으면 말하지 않겠다고 하여 남주는 알겠다고 한다.

○ 2학년 학생들이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쓴 소설 (9)

그러자 덕수가 툭툭대는 말투로 "너라면 재밌겠니?"라고 하였다. 점순이는 말을 돌리듯이 덕수에게 물었다. "너 감자는 먹어봤니? 뜨끈한 감자 있는데 그거 너 줄게! 이거 먹어!" 그런데 덕수는 감자를 거절했고 점순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갑자기 점순이가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대로 있어서 주변이 조용해지자 덕수가 뒤를 쳐다봤다. 덕수는 점순이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란 기색이었다. 그러는 순간 점순이가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더니 쿵쾅대며 어디론가 가버렸다.

○ 2학년 학생들이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쓴 소설 (10)

요즘 점순이와 남주의 만남이 많아지고 있다. 점순이가 울타리를 하고 있는 남주에게 다가가 말을 건다.

"애! 너 혼자 울타리 하니?"라고 남주에게 말했다. 그러자 남주가 점순이에게 "그러면 떼 거지로 일하니?"라고 말했다. 점순이가 "왜 혼자 울타리를 하고 있어?" 라고 말했다. 남주가 "혼자하는 게 편해." 라고 하였다. 그러다 점순이가 감자를 주었다. "니네 집에는 이거 없지?"라며 남주에게 감자를 건넨다. 하지만 남주는 그 감자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감자 먹기 싫다." 라면서 거절한다. 그 이후로 한동안은 점순이와 남주의 만남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 아래의 이야기들도 2학년 학생들이 오늘 쓴 소설들인데요. 작가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다른 시점으로 쓴 소설들입니다. 오답으로 제외하기 아까워서 해당되는 시점을 밝히며 아래에 실습니다.

※ 아래의 이야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아주 잘 쓴 이야기입니다.

점순이가 남주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좀 어이없다. 좋아하게 된 이유는 남주가 어느 날 그냥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점순이는 혼자서 짝사랑을 시작했다. 그래서 점순이는 수줍게 감자도 건넸는데 남주는 그게 싫었나 보다. 남주는 싫은 표정으로 '너나 먹어라.'라고 하면서 계속 일을 했다. 점순이는 너무 속상해서 울었다

※ 아래의 이야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아주 잘 쓴 이야기입니다.

나는 점순이의 언니다. 요즘 점순이가 덕수에게 관심이 있는 거 같다. 내가 목격한 몇 개의 장면만 봐도 점순이가 사랑에 빠졌다는 걸 알 수 있다. 말도 점순이가 덕수에게 먼저 자주 걸고 감자도 직접 구워서 갖다 주기도 하고 평소에 내가 알던 점순이가 아니다. 덕수는 무뚝뚝하고 점순이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점순이는 확실히 덕수를 좋아하는 거 같다. 점순이가 구운 감자를 덕수에게 "너희 집엔 이거 없지?"라는 말과 함께 덕수에게 감자를 전해주니 덕수가 기분이 나빴는지 감자를 거절하는 것이다. 덕수가 감자를 거절하니 점

순이가 화나갔는지 막 얼굴이 빨개지고 눈물이 글썽이는 것이다 점순이는 도망치듯이 덕수 집을 빠져나왔다 점순이는 그 뒤로 덕수를 지나가다가 볼 때마다 덕수를 잡아먹으려고 기를 북북 켰다 며칠 뒤 점순이가 덕수의 닭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덕수는 그걸 보고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었는지 소리만 지르다가 점순이가 닭을 던지는 그제서야 다시 돌아갔다 그 뒤로 많은 일이 있고 닭이 싸우고 있는 소리가 들려 덕수가 달려갔더니 덕수네 닭이 막 죽어가는 모습이였다. 그러더니 결국은 닭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덕수와 점순이가 서로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더니 덕수가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 우는 것이다 점순이가 다신 안 그럴 거냐고 묻자 덕수는 바로 알겠다고 하고 가려고 하는데 중심을 잃고 쓰러져서 둘이 같이 동백꽃 속으로 파 묻혔다

※ 아래의 이야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아주 잘 쓴 이야기입니다.

점순이가 덕수에게 감자를 구워가지고 가져다가 주었는데 덕수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점순이는 덕수의 표정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다. 덕수는 짜증나 하며 감자를 받지 않고 떠났다. 왜 감자를 받지 않았지? 점순이는 덕수가 짜증나 하길래 자신도 짜증나졌다. 기분이 나빠진 점순이는 우연히 눈에 닭이 들어왔다. 점순이는 다음 날부터 덕수네 닭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걸 본 덕수는 닭에게 미안해졌다. 자신이 감자를 받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 그래도 계속 다치는 닭이 불쌍해서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세진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닭에게 먹여봤더니 닭이 미쳐서 날뛰었다. 그런데 고추장을 먹이고 다음 날 덕수는 닭이 아프다는 것을 깨달자 고추장을 안 먹였다. 어느 날 점순이가 닭을 산으로 데려가 수탉과 싸움을 붙이길래 짜증이 나서 가서 점순이네 닭을 죽였다. 그러자 점순이는 닭을 왜 죽이냐고 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지를 깨달자 미안해하였다. 점순이는 덕수를 좋아한다고 밝히고 동백꽃사이로 사라져갔다.